

투데이 칼럼

말 아끼기와 잘못된 언어습관

어떤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조직에 처음 뿌리를 내리려 한다면 가장 먼저 말을 아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제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게는 일의 성패가, 크게는 일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조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말해야만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직에서 우선 말을 아껴도 본전은 건질 수 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조직내에서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말을 아끼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는 것이다.

21세기는 자기PR시대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입을 열어 돌보이게 해야 된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입을 열고 진지한 내용, 질문을 많이 던지고 질문을 통해 대화의 질도 높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

- 리는 5가지 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습적으로 고민가리를 말하고 다닌다  
주어진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 누구나 고민은 한다. 하지만 고민 하더라도 입을 밖으로 내뱉지 말라. 고민이 되든 안되든 어짜피 당신이 풀어야 할 일이다. 특히 당신이 상습적으로 고민을 풀어놓은 대상이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더욱 입을 다물어야 한다. 당신의 잦은 푸념은 결국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돼’하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격이 되고 만다.
  2. 모르는 것은 일단 묻고 본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질문 받



김 양 옥 한국스피치 리더쉽컨설팅 대표

어가야 한다. 잘 모르는데,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무시 당할까봐’, ‘쑥쓰러워서’ 등의 이유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더 큰 실수를 부를 수 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진정 의문이 있다면 썩썩하게 물어봐야 한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이 사실 확인이 아닌 방법이나 방안에 관한 것이라면 생각도 해 보기 전에 일단 ‘물고 보자’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적어도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찾아보라. 질문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3. 이유를 밝히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  
‘왜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서지 않는다면, 남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하거나 맞장구치지 마라. 일이 잘 되면 상으로 주어지는

높은 의견을 낸 당사자에게만 돌아가지만 반대로 일이 안 풀리면(당사자 혹은 함께한 팀원으로부터) 변명이나 원망의 대상에 당신마저 포함 될 수 있다.

4. ‘예(yes)’란 답을 얻고서도 설득하려 든다.  
동조와 허락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말라. 정말 그래도 되는지, 그로 인해 당신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는지 등을 두고, 애써 당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제자 동조를 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심하다는 인상을 남길 뿐이다. ‘공감’을 얻어야만 안심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5. “죄송해요”를 남용한다.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라는 말을 자주 쓰는가? 죄송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다. 일처리 과정에서 만약 정말 당신의 잘못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애매한 말 대신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부터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죄송하다”고 말하지 말라. 습관적인 ‘죄송’은 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새만금 공항예산 전액 삭감이라니

새만금공항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기본 계획 수립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한 작업이 초장부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작 단계의 예산이 엄청난 거액도 아니고 25억 원인데 말이다. 도내 언론사들이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그게 아직은 공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도 새만금에 켈버리 대화를 유지했으므로 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그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북 발전은 예산이 말한다. 적절할 예산 확보가 없다면 발전 사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 사업들의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겠다.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해도 정부가 냉정한 반응을 보이면 그뿐이니가 말이다. 전북도는 보다 치밀해야 한다. 발전 청사진 공표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의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을 발굴했

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그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를 탓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구체적인 추진의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뭉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뜻밖에도 외면과 목적의 대상이 돼버렸다. 예산 전액 삭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때때마다 기대해보라는 듯이 말을 했지만 달달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겠다. 저번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가 릴레이 행보를 보여줬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전북 항공의 현주소를 보면 변방 그 자체이다. 그 변방의 낙후를 떨쳐버리려면 건설사업을 속히 본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11월 국회 때를 대비해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겠다. 남은 기간동안 계속 뛰어야 할 것이다.

고용률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전북도가 호된 소리를 듣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 신흥층이 늘 빨간불인데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한 나날이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저번에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농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손쉬우며 하는 자체도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연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너무 둔해져있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해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연기를 더 단추어야겠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디취업자로 있을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해나 오하리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권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실업률 보도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에서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거들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아도 그러저러 관할은 것처럼 말하려는 것은 삼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시골로 수도권으로 거저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분발할 일이다.

독자제언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법으로 안전하게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이제는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농기계사용에 따른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연평균 1,105건으로 사망자는 146명이었다. 치사율은 일반교통사고의 1배정도 높았으며, 낮 시간대는 농기계와 일반차량이 측면에서 충돌하는 사고, 새벽시간대는 일반차량이 농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이러한 농기계 교통사고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첫째로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도로 주행 농기계는 저속차량 표시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하며,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한다.

둘째,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도로 주행 시 교통안전 법규를 반

드시 준수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후 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확물을 적당히 실어야한다. 경운기 또는 트랙터·트레일러에는 수확물 등을 적정한 높이로 실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일 너무 많이 실게 된다면 등화장치를 가리거나 쓰러질 위험이 높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에 방문 야간반사판을 배포하고 있다.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편리하고 능률적이지만 조작성 미숙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평상시 안전점검 및 교통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를 통해 농기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읍시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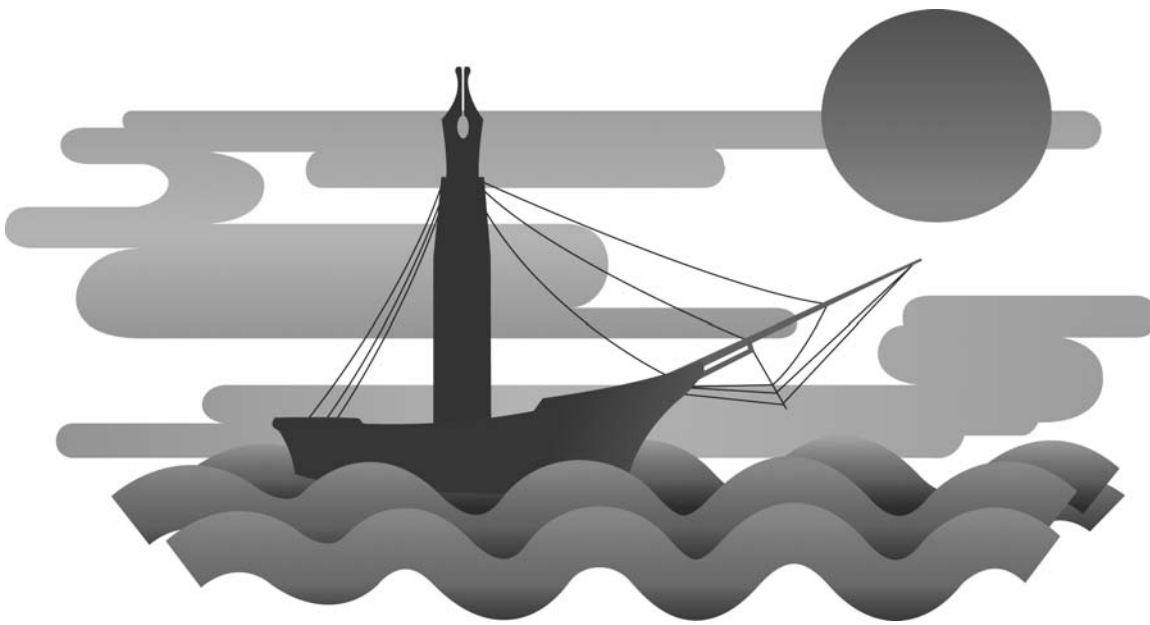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정전으로 불꺼진 베네수엘라의 어느 주방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진 베네수엘라 제2의 도시 마라카이보에서 최근 한 주부가 정전으로 어두운 주방에서 촛불을 켜 채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마라카이보에선 잦은 정전으로 냉장고에 보관했던 고기가 상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을 견디지 못한 정육점들이 헐값에 상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쓴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한 고기를 사먹는 빈곤층이 많아 정육점 앞에 줄을 설 지경이다.

사외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